

# 1940년대 어문정책하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 연구

김경미\*

- I. 서론
- II. 어문정책의 이중성과 이중 언어 사용의 모순
- III.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의 양상과 의미
  - 1. 이중 언어 병용의 의미와 '번역'의 확장
  - 2. 일본어 소설의 서사이탈과 조선어의 '간섭'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제 말기 1938년에서 1945년까지 조선에서 행해진 일제의 어문정책 하에 성립된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제국의 전쟁 징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어문정책으로 실시된 일본어 상용은 문학계에 이중언어 현상을 낳게 하였다. 이것은 식민지에서 일본어를 '중심어'로 규정하고, 조선어를 '주변어'로 전락시키는 이중어(diglossia) 사용관계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언어 사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조선인'인 것에 대해 수치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 경북대학교 강사

이광수의 이중언어 문학 영역은 이중 언어의 병용 표기, 일본어 표기, 조선어에서 일본어로의 번역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은 「선행장」, 「그들의 사랑」, 「가가와 교장」, 「과리」 등이다. 이 작품들에서 이중 언어 사용은 작가의 의도된 서사의 이탈과 이중 언어 혼용 표기로 인해 이질감을 낳았고, 번역 과정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어 소설에서는 제국문화와는 상이한 조선의 문화와 언어 정체성이 서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들은 오히려 제국어의 정체성에 균열을 일으키며, 권력 언어인 일본어를 주변적 언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는 조선어이든지, 일본어이든지 서술과정에서 의식·무의식적으로 서로의 언어를 교섭하는 순간에 발생한 간섭현상이다. 이 현상은 조선어 속에 일본어 섞어 쓰기로 드러나며, 단일 언어 사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중어 글쓰기 작가만의 발화적 특징이다. 이중어 글쓰기는 작가가 말하려고 의도한 것과 표현된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에 의해 창작 주체의 의도와 표현의 결과는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중 언어 작가인 이광수는 일제의 국책에 협력하면서도 조선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제국 문학에 완전히 편입하지 못하고 ‘차이’를 드러내었다.

주제어 : 이중언어, 이광수, 어문정책, 번역, 서사이탈,  
「선행장」, 「가가와 교장」, 조선어, 일본어(제국어)

## I. 서론

이 논문은 일제 말기인 1938년에서 1945년까지의 조선에서 행한 일제의 어문정책 하에 이루어진 이광수의 창작소설을 중심으로 이중어 글쓰기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기

는 일제의 조선민족 정체성 말살을 위해 ‘대동아공영권’의 명목으로 조선의 문화 전반에 ‘내선일체’를 강요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 문화, 교육계에 강제적으로 제도의 개편을 강행하였다. 그 중 제3차 조선교육령은 문화와 일상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일본어 사용 강제를 통해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였다. 일본어 상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통해 ‘내선일체’를 이루어 조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인 징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일제 말기의 폭력적 상황 하에서 행해진 어문정책은 조선 문학계에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문인들에게 언어는 창작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언어 문제는 결국 창작에서 이중어 글쓰기의 문제를 가져왔고, ‘이중어’는 조선인 작가들에게는 문인의 자존심과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일제의 어문정책이 1940년대 문학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조선 문인들이 대거 일본어로 창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일본문학은 조선 문학의 타자이자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일본어 창작은 동경의 대상인 일본문학으로의 진입 이전에 대부분의 작가들에겐 ‘고민의 종자’였다.

이광수도 식민시기에 이중어로 글쓰기를 한 작가이다. 그의 처녀작인 「愛か」는 일본어로 써서 일본잡지에 발표한 작품이다. 이후 1936년 「萬爺の死」도 일본잡지에 발표한 일본어 소설이다. 1939년 이후에는 조선어 소설뿐 만 아니라 일본어 소설을 조선에서 발간하는 일본어 잡지에 몇 편 발표하였다. 일제 말기 이광수의 이중어 소설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친일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이중어 문학 연구에 포문을 연 논의는 임종국이다. 그는 『친일문학론』<sup>1)</sup>에서 이

1)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15~357면.

중 언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협력/저항의 이분법적인 사상 논리로 일제에 협력한 단체와 작가를 친일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문학사에서 배제되었던 일제말기 문학을 총체적으로 접근한 중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김윤식은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sup>2)</sup>에서 식민지 현실에서 한일근대문학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면서 식민시기에 일본어로 창작해서 ‘친일문학’으로 규정되었던 작품들을 재해석하여 이중어 글쓰기의 영역에 확대 포함시켰다. 그는 일본어를 ‘인공어’로 규정하고 이중어 글쓰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이어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글쓰기론』<sup>3)</sup>에서는 이중어 글쓰기의 영역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작가별로 심화된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는 이광수를 제2형식에 해당하는 이중어 글쓰기를 감행한 작가로 규정하고, ‘이광수’와 ‘향산광랑’의 글쓰기로 구분하여 ‘근대’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글쓰기의 연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어 글쓰기의 영역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이광수의 이중어 문학 양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의 일제 말기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에서 연구된 정백수의 『한국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sup>4)</sup>은 식민지 상황에서 이광수와 김사량의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언어(二言語) 사용 현상을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해석한 논문이다. 이 두 작가의 일본어 텍스트를 통해 이중어가 놓여있는 상황과 관계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풀어냄으로써 식민 상황에서 이중어 문학의 중요성을 한층

2) 김윤식,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3~32면.

3)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97~363면.

4)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 문화사, 2000, 15~384면.

부각시킨 논의라 할 수 있다. 한편 이경훈<sup>5)</sup>은 이광수의 일제말기 친일경향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 시기 이광수의 작품을 “스스로 제국주의의 주체가 됨으로써 타력본원적인 욕망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일제 말기 작품의 근거를 그의 초기 문학에서부터 이끌어냄으로써 친일의 내적논리를 규명하고 있다.

이광수 이외 다른 작가 중심으로 일제 말기의 이중어 문학 연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김재용, 노상래, 윤대석의 논의가 있다. 이들 연구는 이중어 문학 연구를 집중, 심화시켜 1940년대 문학에 대한 시각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재용은 『협력과 저항』<sup>6)</sup>에서 일제말기 문학에서 일본어로 쓴 작품을 무조건 친일 문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언어 민족주의적 발상으로 파악하고, 언어와 상관없이 대동아 공영권의 전쟁동원과 내선 일체의 황국신민화라는 두 가지 입장을 선전하는 문학을 친일문학이라고 보고 있다. 또 작품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작가의 자발성이며, 이것에 대한 내적 논리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이 논의는 기존의 친일문학을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협력문학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자발성’과 ‘내적 논리’라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자발성’의 기준 자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 노상래<sup>7)</sup>는 잡지 『국민문학』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이중어 소설이 친일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며, 표현어에 귀속되지 않는 친일문학의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으로써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윤대석은 『1940년

5)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266~357면.

6)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 2004, 37~93면.

7) 노상래, 「이중어 소설 연구」, 『어문학』 86집, 한국어문학회, 2004. 12, 307~339면./ 「『국민문학』소재 한국작가의 일본어 소설 연구」, 『한민족어문학』 4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6, 353~409면.

대 ‘국민문학’ 연구』<sup>8)</sup>에서 국민문학이 놓여져 있는 1940년대의 상황 맥락과 식민 담론의 상관관계 속에서 식민지인을 ‘분열된 주체’로 설정하여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국민문학’의 다층적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이광수의 일제말기 이중어 문학이 당대 어문 정책 하에서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어 문학의 언어표현 양상에 따라 글쓰기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중어’ 글쓰기의 범주<sup>9)</sup>를 이광수의 일본어 창작으로만 좁히지 않고, 조선어와 일본어를 병행한 작품, 조선어로 먼저 창작한 후 다시 번역해서 일본어로 실은 작품들을 모두 이중어 글쓰기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식민지 상황에서 식민본국의 정책과 담론은 현실에서 수행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모순적 양상이 나타난다. 제3차 조선교육령 하에서 이루어진 어문정책도 식민지 현실에서 행해질 때는 교육, 일상, 문학 담론에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는 식민지의 부차적 언어인 조선어와 제국어인 일본어의 역전된 관계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이중어

8)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6. 2, 151~181면./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61~87면.

9) 윤대석은 “이중언어 문학이란 한 작가 혹은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 문학텍스트가 생산될 때 두 가지 언어가 섞여서 사용되고 그것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의 문학 현상을 말한다.”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는 넓은 의미에서 식민지 상황에서 인공어인 일본어를 습득하면서 문학 활동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선어 창작도 이중언어 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6. 2, 174면.)

본고에서는 이 논의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식민시기의 이광수의 전반적인 작품 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말기 작품 중 조선어와 일본어 병용 표기로 된 작품, 일본어 표기 작품 모두를 이중어 글쓰기에 포함하여 고찰할 것이다.

표기로 인해 서사 과정에서의 차이와 의미의 굴절이 드러난다. 먼저 당대의 어문정책의 모순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이광수의 문학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섭으로 발생하는 서사 이탈의 과정과 이중어 표기 양상을 통해 그의 이중어 글쓰기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 낼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이광수 이중어 문학을 ‘친일문학’으로 단정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작품들의 의미 지평을 좀더 다양하게 확장하고자 한다.

## II. 어문정책의 이중성과 이중 언어 사용의 모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식민지 조선을 병참기지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그 중 일본의 전쟁동원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문제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했다. 이 교육령 개정의 본질적인 의미는 1938년 2월의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한데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시체제 동원을 위한 것이 1차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938년 3월 3일 칙령 제 103호로 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은 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완전 폐지하고 보통학교에서는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선정하여 존치하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1939년에는 조선어 과목을 각 학교에서 시험치지 않았다. 즉 형식적으로는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폐과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제에 의한 강제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sup>10)</sup> 교육령 개정에서 나타난 내선일체의 주내용은 일본인과의 학제통일과 일본어 교육의 강화였다. 일본인과의 학제통일은 조선어를 없애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었고, 교육차별

10) 최관진, 『어문정책과 한문교육 정책의 변천 연구-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청람어문교육』 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10, 240면.

을 없앤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일본어(국어)만 필수과목이 되고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일제는 ‘국어사용의 철저’를 황민화의 실천요목으로 삼아 교장,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 상호간에 감시자가 되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고, 수의과목으로 정했던 조선어 과정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부분 총독부의 감시 하에 자체 폐지하게 되어 조선어 과목은 결국 학교교육에서 배제되었다.<sup>11)</sup>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해 각급 학교는 다양한 방도로 일본어 상용을 철저히 실천하였다. 매월 1주를 ‘국어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일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 우수자에게 ‘국어상’을 수여함으로써 일본어 사용을 과시하도록 조장하는 학교도 있었고, 다른 학교에서는 「全校國語化二個年計劃」을 수립하여 각 학급에서 “황국의 民으로서 황국의 언어를 사용함은 진실한 국민이라는 증표이며, 국민으로의 과시”<sup>12)</sup>라는 문구를 매일 소리 높여 복창하게 하였다. 또 매주 초에 「國語表」<sup>13)</sup>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서로 감시하게 한 다음 조선어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표를 뺐고, 그 학생을 체벌하게 하는 등의 악랄한 수법으로 일본어 상용을 강제해 나갔다. 이런 방법은 교원과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은 열등하며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언어정책의 실용화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두 언어 사용이라는 이중어 문학 현상을 낳았다. 그러나 두 언어가 동등한 지위에서 성립한 이중언어(bilingualism)적 사용관계로 보지

11)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언어동화정책-황민화시기 일본어상용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9집, 1995. 12, 277~294면.

12) 山下裕, 「皇道の顯現をめざして」, 『朝鮮』, 287호. 1939. 4, 96면.(이명화, 위 논문 284면 인용)

13) 「국어표」와 비슷한 것이 이광수의 「선행장」이라는 소설에 나타나 있다. 당대의 조선에서 일본어 교육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않고, 조선어는 하급어로 일본어는 상급어로 규정하는 이중언어(diglossia)적 사용관계<sup>14)</sup>로 규정함으로써 언어문제에서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이는 결국 언어 사용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문제로 확대되어 ‘조선인’인 것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하고, 황국신민인 ‘일본인’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계기로 이용하였다. 결국 총독부는 일본어 상용을 완전한 문서로 규정짓지는 않았으나, 현실에서는 관공서 직원, 교원들의 충성도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강제성을 보였다. 일본어 상용화는 생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식에 이르도록 하였다.

3차 조선교육령은 학교뿐만 아니라 문화방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제는 1939년 10월에 문인 250여명을 동원하여 문인단체 「조선인 문인협회」를 결성하게 하고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문인들은 대담과 좌담회를 열어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였다. 『경성일보』에서 주최한 이 좌담회에서는 일본인 문인과 조선인 문인 몇몇을 패널로 모아 반도의 문예, 특히 일본어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광수: 반도인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언제나 언문으로 쓰고 있으니 국문으로 쓰게 되면, 별로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중략)

이광수: 한문을 배운 사람은 언문을 압니다. 국민문학이 의무가 되어 국어가 보급되고, 조선인 전체가 국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빨라도 삼십년, 아니면 오십년 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문밖에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그

14) 조태린, 『일제시대의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7, 58~59면.

냥 둘 수는 없습니다. 모두 국어를 아는 조선인이 되기까지는, 일시적이더라도 언문문학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sup>15)</sup>

이광수는 이 좌담회에서 국어 상용화가 문학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염려하고 있다. 특히 문학에서 국어사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최소한 삼십년에서 오십년은 지나야만 국어로 쓴 문학이 조선인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의 전면적인 상용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명한 것이다. 이광수 발언의 이면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즉 국어 상용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조선에서 문학의 불가능성을 말한 것이다. 또 제국의 언어가 식민지 조선에서 강력한 권력 장악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식민지인이자 문학인으로써의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일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이광수도 문학에 있어서 일본어 상용에 대해서는 곤란함을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소설 창작을 일본어로 시작한 작가이고, 일제의 어문정책의 개정과는 별도로 일본어로 가끔씩 창작하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어와 조선어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가능한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 writer)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문학의 특수성과 그 문학을 읽는 독자인 조선인의 모국어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좌담회에 참석한 일본인 문인들은 조선어의 일본어 번역 문제를 지적한다.

徳永直: 한 가지는 번역이 어려운 점입니다. 저도 조선판에 조선의 작가가 쓴 작품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에 있

15) 「문인의 입장에서-菊池寛 씨 등을 중심으로-반도의 문예를 말하는 좌담회」, 『경성일보』, 1940. 8. 14~16.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 평민사, 1995.)

는, 이번에 창씨한 後藤이라는 기자는 아이가 곧 태어나려 할 때 나는 소리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모르겠다고 합니다. 괴로운 고토우 상의 부인이 내지인이므로,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물어보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아주 곤란한데, 그런 형용의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辛島 선생께 여쭙어봅니다만, 절대적으로 어렵습니까?

辛島曉: 번역은 어렵습니다.<sup>16)</sup>

위의 두 일본인은 조선인이 쓴 조선 문학을 일본어로 번역하려고 할 때의 어려운 지점을 토로하고 있다. 반도의 문예에 일본어 상용화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하루 빨리 조선 문인들이 일본어로 창작할 것을 종용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상 이들의 대화는 일본어와 조선어가 근본적으로 문화의 토대와 정서가 상이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역으로 조선인이 일본어를 상용으로 문학 창작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번역문제는 이 두 대화를 끝으로 좌담회에서 다른 화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들은 조선의 어문정책에서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개정하여 현실에서는 일본어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식민지인의 언어사용이나 문학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부당한 조치임을 일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식민 종주국인 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어 문학을 일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제국의 권력 즉 일본 문학사 안에 미개한 조선 문학을 포함시켜 준다는 입장이다. 일본인 스스로 번역의 난점·정서의 표현, 형용어의 차이 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

16) 「문인의 입장에서-菊池寛 씨 등을 중심으로-반도의 문예를 말하는 좌담회」, 위의 책, 468면.

을 표명하는 것은 일본어 상용화 정책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 문학의 일본어 번역은 조선인의 입장에서 모국어가 내재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미와 표현의 왜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본어로 창작해야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인식하였다. 이광수도 일본어의 번역문제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번역의 불완전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일본어를 상용하고 문학 창작언어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광수: 冊이 나오기는 몇가지, 나왔으나 아직 日字가 없어 별다른 反響은 못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經驗하여 보니까 翻譯이 問題입니다. 語學에 精通할 뿐더러 文學的 教養이 깊은 이가 붓을 드리 하여 준다면 安心하고 맡길 수 있으되, 誤譯과 서투른 譯에 對해서는 尙간 傷心되지 않습니다. 아마 나 한사람의 問題가 아니고 누구나 제가 國語로 「書おろし」(새로 씀)한 것이 아니면 多少의 不滿이 있을 걸요.

정인섭: (중략) 國語로 作家가 直接 「書おろし」한 文學이란 아직은 時日을 要하는 것이니까 過渡期인 지금에 있어서는 이러한 機關 設置가 가장 必要하여요.<sup>17)</sup>

위의 글은 『삼천리』에서 조선 문인들끼리 모여 국민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조선 문인의 동경문단 진출에 대한 논의에서 이광수의 일본문단 진출의 영역에서 번역문제의 난점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광수는 일본어에도 능통한 작가였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번역가에 맡기는 것보다 자신이 일본어로 직접 다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하고 있고, 정인섭은 직접 일본어로 쓰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번역기관을 설치하자는 입장을 취하

17) 「신체제와 조선문학의 길-신체제하의 조선문학의 진로」, 『삼천리』, 1940. 12.

고 있다. ‘번역’문제가 조선 문인들의 제국 문단에의 편입의 욕망과 함께 조선어를 버리고 일본어로 창작하기 힘든 현실에 대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말기의 어문정책은 식민지배자의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력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은 조선인의 황국신민으로의 자격 부여 내지는 ‘국민문학’권 안에 들 어올 수 있는 특권으로 선전된 모순을 담지한 정책이었다. 식민지 인의 입장에서 일본어 상용은 제국의 신민이 되고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제가 되기도 했지만, 정서와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 하는 문학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균열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 III.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의 양상과 의미

#### 1. 이중 언어 병용의 의미와 ‘번역’의 확장

이광수는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황민화 담론과 국책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이다. 특히 제3차 조선교 육령 이후 문단에서 일본어 창작과 번역문제가 핵심 화두가 되면 서 그는 일본어와 조선어를 병행해서 창작하게 되었다. 익히 알다 시피 이광수는 첫 번째 창작이 일본 유학시절에 쓴 「愛か」라는 일 본어 소설이었다. 이것은 이광수의 창작 행위 매커니즘을 해석하 는 기제로 적용할 수 있다. 그는 조선어가 모국어로써 완벽하게 체계를 갖춘 16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 어가 아닌 인공어라 할 수 있는 문학어를 일본어로써 시작하게 되 었다. 그에게 일본어는 조선어처럼 모국어의 의미는 아니지만, 창 작의 영역에 있어서는 일본어가 조선어 못지않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인의 유명한 말처럼 그도 문학 창작을 일본어로 구상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광수는 대표작인 『무정』을 비롯하여 20년대·30년대까지 다량의 작품을 조선어로 창작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광수는 인공어인 문학어 창작 표기에 있어서는 제국어인 일본어와 식민어인 조선어 둘 다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중 언어 표기가 자유로웠던 이광수의 일본어 사용은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결부되었고, 한편으로는 독자 다수인 조선 민중의 일본어 해독 능력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어를 상용어로, 조선어를 주변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균열된 이중 언어 문단상황은 이광수에게 딜레마로 작용하였다.

1939년부터 이광수는 국책에 협력하는 소설을 창작할 때는 조선어와 일본어를 병용하는 글쓰기를 사용하거나, 조선어로 먼저 창작한 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어 잡지에 다시 싣거나 하였다. 그러나 1942년 이후 조선어 창작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작품을 일본어로 창작하였다. 이광수의 1939년도 작품인 「선행장」<sup>18)</sup>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수업하는 장면을 통해 국어(일본어)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다룬 텍스트이다. 서술자는 일본어 상용화를 위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인 식민지배자를 두둔하고 식민지인인 학생을 불성실한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황국신민이 되기 위한 조선인의 자세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표면적 서사의 의미보다 서사 전개 과정에서 당대 일본어 상용화 정책의 모순과 폭력성을 읽어낼 수 있다.

18) 「선행장」, 『家庭の友』, 1939. 12. 40~47면. (이광수, 이경훈 편역,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330~341면.)

면은 연필을 꼭 쥐이고 집관(館)사자 불메질(質)사자 밧갈경(耕)사자 이러한 글자들을 가튼 자를 백번씩 쓰고 안자 잇섯다.(334쪽)

“응 가끼도리를 스므마디에 열네마디나 잘 못 써서 선생이 면의 쟈꼬오시오를 도루 거두섯다구 아까 면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내 압해 끌어 안자서 우는군. ‘아버지 쟈꼬오시를 빼앗겨서 잘 하면 또 주신다고’이려고 우는군.” (334쪽)

면이는 분명 피곤한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옷깃에 달았던 「선행장」을 떼올때에 바든 정신적 타격이 필시 컸을 것이다. 오륙십명 아이들 중에서 당한 망신의 부끄러움이 감정적인 면에서는 정녕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중에 드른말이지만 「선행장」을 떼올때에 면은 어쩌케나 슬피 울었는지 선생님도 고개를 돌니섯다고 한다. 그리고 아비에게 그런 사연을 보고할 때에 심경도 어지간히 어려운 것이었슬 것이다. 게다가 해가 질때까지 사생을 하고 돌아왔스니 껍은 피곤하였슬 것이다. 아비되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면이가 밧갈경사자 육십자까지 쓸때까지 뒤에서 보고 잇섯다. “그만자거라”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것을 꺽꺽잡았다.

“하로 이틀 두어시간 잠을 덜 자기로 어떨라고 그만한 고생에도 저항을 못해서 무엇해.”

이러한 생각을 하고 밧갈 경사자(耕) 백자를 다쓸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339쪽)<sup>19)</sup>

이 작품은 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일본어 받아쓰기를 못해서 국어 선생님에게서 선행장을 뺏기는 것이 서러워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표면적 내용은 국어를 잘 못하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의 심정과 당사자인 학생의 심정을 표현하여 국어를 열심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역으로 국어는 모국어가 아니므로 배우기가 무척 힘들 뿐만 아니라 국어 받아쓰기를 통해 학생의 선행장을 빼앗는 수업방식의 가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선생 역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

19) 「선행장」, 위의 책, 334-339면.

황이 묘사됨으로써 당시의 일제의 어문정책의 폭력적인 단면을 보여주게 된다. 작가의 의도가 국어의 상용화를 지지하든 아니면 국어 상용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든, 독자의 입장에서 이 소설은 조선인의 일본어 사용의 어려움, 식민지 본국의 어문정책의 가혹성, 조선어 말살정책의 일환으로써의 교육정책의 일면을 역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제국의 언어에 대한 조선인의 노력이 더 필요함<sup>20)</sup>으로 읽힌다 하더라도 「선행장」은 10세, 소학교 4학년 조선인 아이에게 일본어의 강제적 주입에 대한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10살짜리 아이가 써야 할 국어 받아쓰기 숙제 양의 어마어마함, 그리고 한자의 난이도 측면에서 일본어는 실용적인 언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평범한 대중에게는 낯설고 배우기 힘든 언어임을 명시하는 작품이다. 10세 소년이 배워야 할 한자 수준은 ‘집관(館)入자 불메질(質)入자 밧갈경(耕)入자’이다. 이런 한자는 중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한자라고 볼 수 있다. 서사의 이면을 따라가 보면 일본어 상용화의 강제가 가져온 폐단과 일상생활에서의 곤란한 언어생활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장을 다시 찾기 위해 일본어 쓰기연습으로 피곤해서 지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잘 드러난다.

「선행장」은 서사 과정에서 의미의 이중성뿐 만 아니라 언어 표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적 텍스트이다. 먼저 이 소설은 조선어

20) 이경훈은 「선행장」의 의미를 “일본어 교육을 둘러싼 문제, 즉 한국어 말살 및 일본어 교육과 관련된 식민지 지배/피지배의 진정한 관계를 오히려 불성실한 피교육자와 성실한 교육자의 관계로 변모시키는 것보다도 연관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일제가 주장하는 “일시동인”으로써 피식민지 상황을 있게 한 약육강식의 근대 제국주의 자체를 초극하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광수, 이경훈 편역, 『친일발굴소설집-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443면.)

를 기본으로 표기해서 창작한 작품이다. 그러나 서술 과정에서 일본어 한자를 발음 그대로 한글로 표현하는 방식, 일상 대화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 대화 중간에 일본어를 직접 삽입하여 표기하는 방식, 끝으로 한글로 표기한 일본어를 괄호치기를 통해서 해석을 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소설의 내러티브를 자주 끊으며, 해독과정에서 더듬거림과 생경함을 발생시킨다.

- ① “아버지 젠코오시(善行章)를 빼앗겨서. 가끼도리 잘 못했다고 스물에 여섯박게 안마졌다고. 선생님이 젠코오시오 도루내라구. 이 다음에 공부 잘하면 또 주신다구.”  
하고는 또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젠코오시오 라는 것은 동글한 은바탕에 남빛 사구라를 노흔 것으로서 특히 국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주어 옷깃에 붓치게 하는 것이다.) (333쪽)
- ② “그럼 안 뺏겨요? 그것을 무엇에 써요? 공부가 그 따위고야 중학교에를 어떻게 들어가요? 원 스므마디에 열 네마디를 잘 못쓰다니? 아다마가 와루이네. 그런데 왜 인제야 내게 그 말씀을 하셔요. 내 호차리질을 좀 할 것을.”(중략)(334쪽)  
“센세이 오하요 미나산 오하요.”  
하는 유희를 생각하였다. (중략)(337쪽)  
“우리 연이는 고등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녀학교 선생이 된단 말야. 그래서 오이찌 니 오이찌 니 하고 체조를 가르친단 말야.” 하고 우셨다.(338쪽)
- ③ “너 선생님을 원망하니?”  
안해는 눈물을 씻고 이러케 면을 보고 물었다.  
“아니 ありがたいと思つて居るよ.”  
면은 서슴지 안코 이러케 대답하였다.  
“先生は眞剣だよ. とても眞剣だよ.”  
면은 이런 소리를 하였다. 신갱이란 말은 바로 일전에 요미가따에서 배운 말인 줄을 나는 안다. 그러나 면은 무슨 뜻으로 선생님을 신갱이라고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340쪽)  
“能く云つて呉れた. 先生はありがたいんだよ.”

나도 이러케 말하지 아니 할 수 업섯다. (341쪽)<sup>21)</sup>

①의 인용문은 일본어 한자를 조선어로 바꾸어서 표기하지 않고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바로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善行章’이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는 것, ‘받아쓰기’를 ‘가끼도리’라는 일본어 발음으로 바로 표기하는 것, 그리고 낯선 식민본국의 용어를 괄호 치기를 통해 주석을 다는 방식은 ‘조선어’로 해독하는 식민지인의 입장에서는 더듬거림과 생경함의 표상이다. 평상시에 전혀 사용하지 않던 어휘들이 돌출되면서 글 읽기는 잠시 중단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한글로 다시 풀어 쓴 주석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 즉 식민본국의 언어와 식민지의 언어가 상호 간섭을 일으켜 내러티브 진행과정을 거칠게 하고 있다. ②의 인용문은 대화 중 문장 전체를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인의 생활에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인 가족끼리의 대화에서 맥락 없이 일본어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두 언어 혼용의 부자연스러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어를 상용했던 대부분의 식민지인은 모국어의 문법체계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다. 이런 원리에서 볼 때 ②의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곧바로 표기하는 방식과 ③번의 일본어 히라가나를 그대로 문장에 노출시키는 방식, 즉 이중어 병용 글쓰기는 제국어와 모국어의 훼손을 동시에 가져오고, 서사 진행 단절과 끊어 읽기 등의 결과를 낳는다. 일종의 번역을 통해 ‘다시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는 내러티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국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선어로 독서하는 식민지 독자가 제국언어 체계에 쉽게 편입되도록

21) 「선행장」, 위의 책, 333~341면 참고.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 해독자 비율이 낮았던 당시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제국 언어로 편입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정신’ 수용을 위한 국어 상용에 대해 더욱 이질감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일제 말기의 상황에서 일본어는 식민지 조선에서 특권어의 위치를 점하면서 권력어로 기능하였고, 조선어는 주변어 내지는 소수어로 하층 언어의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어인 조선어 사이에 권력어인 일본어를 삽입하는 방식은 오히려 제국언어의 정체성에 균열을 일으키며, 특권적 언어를 부수적 언어로 주변화시킨다. 언어의 혼성화로 인해 제국어와 식민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국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국어’로 상징되는 ‘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인 동시에 ‘중심어’인 일본어를 주변어로 전락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 상황에서 이중 언어는 각각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없다. 일제 말기의 일본어의 특권적 위치를 생각해볼 때, 완벽한 일본어의 구사가 아니라, 한글식 발음 표기, 괄호치기, 주석달기 식의 제국어의 주변적 사용은 오히려 국어(일본어)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이 시기의 이광수는 조선어로 창작한 소설에서 부분적으로 일본어로 표기한 것뿐 만 아니라 많은 분량을 일본어로 표기한 후 다시 괄호치기해서 한글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까시의 이 말에 원구는 무슨 중대성이 있음을 직감하였다. 그래서 말없이 다다시와 말을 맞추면서 다다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要するに、われわれはばね、父や母は母論のこと僕自身からして、すでに、君をわれわれと全然違つたものやうに思つていたんだ。それがそもそもの間違だつたんだよ。これは僕の家族に限つたことではないと思ふ。恐らくは、すべての日本人が、すべての朝鮮人に對して、さうであるやうに思ふ。この中に根本的な誤謬があると思ふんだよ。即ち認

識の態度といふかな、方法といふかな、これが間違つていると思ふんだ。君をわれらと全然違つたものと思ひこんでいるから始めから君の一言一動を、警戒穿鑿の眼を以つて見る。さういふ眼でみるから何んだが、われらのすることと違つているやうに感ずる。そこでますます警戒と穿鑿を加へる。ますます疑を起して氣まづくなる。遠ざかる、といつたわけなんだよ疑心暗鬼。”

(요컨대, 우리들은 말이야, 부모는 말할 것 없이 나 자신부터가 늘 자네를 우리들과는 아주 다른 존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야. 그것부터가 잘못이었네. 이점은 하필 우리 가족에게만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아마도 모든 일본인이 모든 조선인에 대해서 그런 줄 아네. 여기에 근본적 잘못이 숨은 줄 아네. 다시 말하면 인식의 태도랄지, 방법이랄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네. 자네를 우리들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고만 있으니까, 처음부터 군의 일언일동을, 경계와 천착의 눈으로 보지. 그렇게만 보니 어쩐지 우리들의 하는 일과는 딴 것으로 느껴지네. 그러니 더욱 경계와 천착을 더하네. 자꾸자꾸 의혹을 일으켜서 거북하게 되고 멀어지고, 하는 까닭일세. 의심암귀야.)

다다시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꼭 같이 조선인을 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22)</sup>

위의 인용문은 원구와 다다시의 대화 중 다다시가 원구를 통해 조선인의 진정성을 깨닫고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경계와 의심에 대해 반성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먼저 서사과정에서 계몽의 전도 현상<sup>23)</sup>이 일어나는 것은 차치하고서도 장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맥락 없이 일본어로 표기함으로써 일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번역’ 행위를 거친 후에 독서를 지속할 수 있다. 작가의 창작행위 역시 조선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하는 인지 체계 과정을 거쳐 표현하게 된다. ‘번역’은 식민지인이 식민본국인

22) 「그들의 사랑」, 위의 책, 137~138면.

23) 이광수의 후반기 문학에서 계몽의 역전 현상에 대한 논의는 김경미, 「이광수 후반기 문학의 민족 담론의 양가성」, 『어문학』 97집, 한국어문학회, 2007년 9월 참고.

제국문학으로의 편입을 의미하거나 식민자로부터 ‘호명’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지만, 결국 문학 내적으로 여전히 식민지적인 것으로 제시된다.<sup>24)</sup> 즉 조선어 사용에서 일본어로 병용 표기하는 것이 절대로 제국문학에 편입되거나 제국언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어가 모국어인 독자에게는 제국어의 모어 간섭, 또는 주변화로 인지되며 그 문학 자체도 조선 문학으로 남게 될 뿐이다.

장문의 일본어 표기를 넘어서 이광수는 조선어로 창작한 작품 「옥수수」(춘원 作)를 『삼천리』에 1940년 3월에 실고, 이후 일본어 잡지 『충동원』에 1940년 11월호에 「玉蜀黍」(이광수 作)로 번역하여 다시 실는다. 조선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창작구상이 가능했던 이광수는 자신의 작품을 조선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 딱히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식량특집호에 국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식민지인의 표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신을 철저히 이행하여 황민으로 호명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옥수수」의 서사는 시국 정책에 맞추어 ‘옥수수’로 식량난을 해결하는 안씨를 통해 충후봉공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이다. 두 언어 작품의 주제와 서술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 ‘일본정신’의 핵심을 ‘국어’상용으로 바라보는 제국인의 입장에서 조선 문학을 제국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식민지 문학이 제국문단에 편입하는 것인 동시에 동등한 신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번역’은 조선 정신과 문화를 ‘일본어’로 표현하여 식민지 헤게모니의 이미지로 변형된 반면에, 동시에 내적으로는 여전히 조선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는 조선어이든지, 일본어이든지 서술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서로의 언어를 교섭하는 순간에 발

24) 더글러스 로빈슨, 정혜옥 옮김, 『번역과 제국-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동문선, 1997, 126~129면.

생한 간섭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어 속에 일본어 섞어 쓰기로 드러나면서 조선어에 담긴 문화와 정신의 영향으로 일본어의 쓰임이 부차적 언어로 인식되는 결과를 생산한다. 이광수의 일제 말기 이중어 글쓰기는 국책에 협력하면서도 조선인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이중 언어문학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제국문학으로 완전히 편입하지 못하고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 2. 일본어 소설의 서사이탈과 조선어의 ‘간섭’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발발한 이후 1942년에 정책적으로 조선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고, 1943년 3월에는 총독부에서 교육령을 개정하면서 중등학교와 사범학교에 한국어 교과를 완전 폐지<sup>25)</sup>하였다. 이광수는 1942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소설을 모어가 아닌 일본어로 창작하였다. “모어란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로, 그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그.그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종속시킨 언어이다.”<sup>26)</sup> 모어로 창작하는 것은 모어 공동체의 정서와 가치에 의해 형성된 글쓰기이므로 서술자의 주관적 인식을 토대로 개념화가 되어, 인물상이 구성되고 모국어 독자들에서 정서적 동질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일본어 창작은 작가와 독자의 공동체적 공유의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는 정서적 이질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차이를 나타낸다. 일본어 창작으로 인해 이런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작품이 「가가와교장」과 「파리」이다.

1942년 이후 일본어로 창작한 「가가와 교장」<sup>27)</sup>은 조선의 한 시골학교에 교장으로 온 일본인 인물 ‘가가와’의 학교생활과 교육정

25) 이명화, 앞의 글, 288면.

26) 정백수, 앞의 책, 203면.

27) 이광수, 「가가와교장」, 『국민문학』, 1943. 10, 7~26면.

신을 통해 총후봉공에 이바지하는 일본인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의 기본적인 서사구조를 정직한 일본인과 부정직하고 타협적인 조선인으로 대비해서 서술하고 있다. 가가와의 성격을 ‘정직일변도’의 인물로서 타협하지 않고 수완이 없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가가와’의 반대항의 인물로는 조선인 후원회 회원과 기성회원으로 약삭빠르고 기브앤 테이크주의자로 배치한다. 문제는 이러한 서술 구도를 통해 ‘가가와’와 같은 일본인의 태도를 본받아 황국신민이 되어야 함을 계몽하자는 의도이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한 인물들이 대부분 식민지 조선의 지방부호 내지는 도회의원인 세력가들<sup>28)</sup>이다. 식민지하에서 권세거나 부호들은 대부분 일제와 손을 잡고 총독부의 보호아래 있었던 계층이다. 친일파는 식민본국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선호하는 인물유형이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약삭빠르고, 책략적인 조선인들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그들은 부자인데도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한 부류들이었다. 그런데 일본인 ‘가가와’의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비판하게 되는 아이러니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이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고안해 낸 일본인 ‘가가와’안에 작가의 정체성이 개입되면서, 그 정체성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결과인 것이다. 결국 총후봉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구성된 서사가 내러티브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인조차 괴짜라고 판단하는 ‘가가와’라는 인물을 통해 총후봉공을 실천하자는 의도는 서사과정에서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

28) 후원회원인 가네가와(金川), 보꾸자와(朴澤)와 기성회 이사인 리노이에서 레츠(李家時烈)는 조선인 지방부호로 도회의원, 양조업을 하는 부자이다. 적극적으로 창씨개명을 하였고, 일본인 교장이 있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다. ‘가가와’는 일제말기 국책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된 인물인데, 융통성 없는 성격과 서사과정에서 반동인물로 지정된 조선인의 잘못된 계층 설정으로 인해, 「가가와교장」의 주인공 ‘가가와’는 총후 봉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인물로 드러나게 된다.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가와는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그의 일본정신에 감화한 조선인 학생조차 떠나게 하는 결말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그려진 서사가 크게 어긋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어로 일본정신을 그리려한 의도와 조선인으로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잠재된 정체성이 서사과정에서 교섭함으로써 일어난 균열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광수가 의도적으로 ‘황국정신’을 선전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과 모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쓴 작품에서 서사의 어긋남은 자주 발견된다. ‘서사’ 즉 소설은 일반적인 논설류와 달리 플롯을 구상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의식과 정서를 이탈하여 창작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 「가가와 교장」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서사의 어긋남은 작가가 조선에서 오랜 세월동안 쌓아온 감정과 가치, 정서의 발현이 일본어 창작에서도 억제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어로서의 창작은 모국어를 공유한 공동체와의 가치, 정서와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서사과정에서 이런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광수 역시 외국어로 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무모한 일임을 밝힌바 있다.

향산광랑: 사투리란 둘째 셋째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어로 소설을 쓰고자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모하니까요.(중략)

향산광랑: 대체로 조선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수필이겠지요. 소설을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일본인 아내를 얻든가, 일본에 와서 몇십년간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최남선: 몇십년을 살아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옛날 그리운 라프카디오 현의 말이지만, 그 말이 귀에 익어 할 수 없군요.

“자기의 모국어’가 아니어도 다시 말해 모국어 아닌 것으로 문학을 짓는다는 것은 무모하다” 라고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요. 몇백년에 한 사람 정도이긴 해도 만엽집의 특징(민엽집조)으로 읊은 가인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지요. 바로 저 만엽집을 읽어보면 우리들도 만엽집조로 읊은 작품을 읽어도 도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뭔가 우리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이 있더군요.

향산광랑: 그렇겠군요. 외국인이 그 흉내 내기가 가능할까 어떨까는, 근본적으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최남선: 그것은 재미있는 역설이군요.

향산광랑: 금년에 들어 저도 국어(일본어) 작품을 4, 5편 썼지만 이런 것은 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씨가 나오지 않아서……. 29)

이광수는 이 대답에서 조선인이 일본어로 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흉내 내기’에 불과한 것이고, 흉내조차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제가 어문정책에서 ‘국어=일본정신’을 나타내는 것임을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자신의 모국어로 창작해야만 창작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필류 등은 문장이 직설적인 언설을 사용하여 표현한 경우의 글이며, 소설은 서사과정에서 작가의 역사, 사회, 문화, 정신, 사상적 인식과 공동체 이데올로기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장르이다.<sup>30)</sup> 그러므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일본정신’ 표방을 작정하고 글쓰기를 감행하더라도 작가의 오래된 공동체적 이데올로기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특히 식민 본국의 언어로 창작하는 비

29) 「동경대답」, 『조선화보』, 1944.1.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창작 및 산문선』, 역락, 2007, 226-227면.)

30)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1995, 155-156면.

동질성으로 인해 서사 과정의 부자연스러움은 필연적이다. 서사 과정에서 미끄러짐은 오히려 일본어 창작을 모국어인 조선어적 체계가 간섭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온전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제국어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를 통한 흉내 내기는 그의 말처럼 흉내 내는 순간 스스로 완벽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중어 글쓰기의 균열과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다.<sup>31)</sup>

일본어로 창작한 작품은 그 의미의 미끄러짐뿐만 아니라 조선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로 인해 조선의 문화를 일본어로 ‘표기’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의 차이를 교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작가의 언어의식 내부에서는 그 차이성을 물상화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또 조선인의 일본어에 의한 발화는 결국 조선어에 의해 간섭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조선어의 간섭이라는 것은 일본어 체계에서의 이질성을 체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sup>32)</sup> 이러한 양상은 이광수의 일본어 텍스트에도 드러난다. 그것은 주석달기, 즉 괄호치기로 일본어에는 없는 조선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괄호 안에 일본어로 뜻풀이를 하는 경우이다.

“又ロギ (黃色)”<sup>33)</sup>

“アンパン (奥座敷)”<sup>34)</sup>

31)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작품으로는 「파리」가 있다. 1944년도 작품인 「파리」 역시 일본어로 창작되었으며, 총후봉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선인 주인공을 그려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고자 의도한 작품이다. 그러나 작가가 창안한 주인공의 과도한 일본정신 흉내 내기로 인해 오히려 그 의미를 희화화시키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계몽의 대상 스스로가 과잉 실천함으로써 계몽하는 주체 역시 의미가 무화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경미, 앞의 글, 200~201면 참고.

32) 정백수, 앞의 책, 339~341면 참고.

33) 이광수, 「蠅」, 『반도작가단편집』, 1944. 5, 41면.

34) 이광수, 위의 책, 45면.

이 단어들은 일본어인 카타카나로 표기했으며, 일본문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이기 때문에 조선어 발음 그대로 표기한 후 일본어 한자로 괄호 안에 주석을 달고 있다. ‘누로기’는 얼굴이 황색인 인물의 별명으로 작가가 그 의미전달을 위해 황색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안방’은 일본문화에는 없는 어휘이므로 ‘아랫목 자리’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한자로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다. 각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써 작가가 직접 개입하여 이중어 사용 표기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것은 언어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일본어로의 창작의 한계와 일본어 창작과정에서 조선어의 간섭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번역 불가능한 단어들,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도 조선어 발음 그대로 표기함으로써 조선어로 인해 일본어의 어법체계를 해체하기도 한다.

“ケヂベ”<sup>35)</sup>

“ベウキオクレル”<sup>36)</sup>

이 단어들은 번역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작가가 카타카나를 그대로 노출시킨 경우이다. 첫 번째 단어는 “케지베”라는 발음으로 우리 조선어에서 “계집애”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베우키오쿠레루”라는 발음으로 “배우기가 늦었다”는 뜻이다. 작가는 일본어에서 이 용어와 비슷한 개념어를 찾아내어 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경한 조선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작가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표기만으로도 소설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국어인 일본어가 아니라 조선어임을

35) 이광수, 「加川校長」, 『국민문학』, 1943. 10, 15면.

36) 이광수, 위의 책, 17면. 이 부분에 대해 이경훈은 “병으로 늦는다”고 번역하고 있으나, “병으로 늦는다”의 표기는 “ビョウキオクレル” 이어야 한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중어를 사용하는 작가들의 작품에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는 작품의 시공간이 조선이고,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조선 문화의 특수성으로 일본어를 간접하는 ‘조선성’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어로 표기해도 일본문학일 수 없는 이유이자, 작가의 정체성을 떠나서 창작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어 창작에 대한 모국어인 조선어의 간접은 이중어 문학의 특징이자 단일 언어 사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중어 글쓰기 작가만의 발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중 언어 작가는 ‘자신이 말하려고 의도한 것과 표현된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sup>37)</sup>에 의해 창작 주체의 의도와 표현의 결과는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광수의 이중 언어 문학은 일제의 국책에 협력하는 내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조선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제국 문학에 완전히 편입하지 못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 IV. 결론

이광수는 일제 말기 이중 언어로 소설을 창작한 작가이다. 그의 이중어 글쓰기는 일제의 어문정책의 논리와 ‘내선일체’의 황민화 담론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1938년 이후의 일제의 언어 정책은 식민지 조선에 이중 언어 사용이라는 이중어 문학 현상을 낳았고, 이는 언어문제의 차원에서 조선인의 정체성 문제로 확대되었다. 모국어의 금지와 일본어 상용의 갈등과 모순, 조선 문학의 일본어 번역문제는 일제 말기의 이중어 문학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

37) 정백수, 앞의 책, 348면.

일제 말기의 어문정책은 식민지배자의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력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은 조선인의 황국신민으로의 자격 부여 내지는 ‘제국문학’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으로 선전된 모순을 담지한 정책이었다. 식민지인의 입장에서 일본어 상용은 제국의 신민이 되고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제가 되기도 했지만, 반면에 정서와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학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균열된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광수의 이중어 문학 영역은 두 언어의 병용 표기와 일본어 전용 표기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일제 말기 그의 이중어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은 「선행장」, 「그들의 사랑」, 「가가와교장」, 「파리」등이다. 이 작품들에서 이중어 문학 창작은 의도된 서사와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서사의 교섭, 이중 언어 표기의 혼용이 빚어내는 이질감 그리고 번역을 통해 드러나는 언어체계의 혼란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것들은 그의 작품을 ‘친일’이라는 단일한 의미 규정에서 벗어나 언어 문제와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일제 말기의 상황에서 일본어는 식민지 조선에서 특권어의 위치를 점하면서 권력어로 기능하였고, 조선어는 주변어로 하층 언어로 하향 이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어 사이에 일본어를 삽입하는 글쓰기는 오히려 제국언어의 정체성에 균열을 일으키며, 특권적 언어를 부수적 언어로 주변화 시키는 현상을 낳았다. 언어의 혼성화로 인해 제국어와 식민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국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국어’로 상징되는 ‘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인 동시에 ‘중심어’인 일본어를 ‘주변어’로 전락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 상황에서 이중 언어는 각각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없다. 일제 말기의 일본어의 특권적 위치를 생각해볼 때, 완벽한 일본어로의 표현이 아니라, 한글식 발음표기, 괄

호치기, 주식달기 식의 제국어의 주변적 사용은 오히려 국어(일본어)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번역’은 식민지인이 식민본국인 제국문학으로의 편입을 의미하거나 식민자로부터 ‘호명’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지만, 결국 문학 내적으로 여전히 식민지적인 것으로 제시될 뿐이다.

일본어로 창작한 작품은 그 서사 과정에서의 이탈뿐 만 아니라 각각의 문화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조선의 문화를 일본어로 ‘표기’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의 차이를 교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작가의 언어의식 내부에서는 그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또 조선인의 일본어에 의한 발화는 결국 조선어에 의해 간섭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조선어의 간섭이라는 것은 일본어 체계에서의 이질성을 체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는 조선어이든지, 일본어이든지 서술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서로의 언어를 교섭하는 순간에 발생한 간섭현상이다. 일본어 창작에 대한 모국어의 간섭은 이중어 문학의 특징이자 단일 언어 사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중어 글쓰기만의 특징이다. 이중 언어 작가는 자신이 말하려고 의도한 것과 표현된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주체의 의도와 표현의 결과는 항상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광수의 이중 언어 글쓰기는 일제의 국책에 협력하는 내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조선적 정체성으로 인해 일본 문학에 완전히 편입하지 못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논의를 통해 이광수의 일제 말기의 문학을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친일’, ‘협력’ 문학으로 이분화하여 일반화하는 시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언어와 민족정체성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의미 지평이 좀더 다양하게 확장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광수, 이경훈 편역, 『진정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이광수, 이경훈 편역, 『친일문학전집Ⅱ』, 평민사, 1995.  
『반도작가단편집』, 한국도서출판주식회사, 1944.  
『삼천리』, 『충동원』

### 2. 논문

- 김경미, 「이광수 후반기 문학의 민족담론의 양가성」, 『어문학』 97집, 한국어문학회, 2007. 9, 181~208면.  
김경미,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민족주의 담론의 양가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2007. 12, 1~187면.  
노상래, 「이중어 소설연구-『국민문학』 소재 비친일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86집, 한국어문학회, 2004. 12, 307~339면.  
노상래, 『『국민문학』 소재 한국작가의 일본어 소설 연구』, 『한민족어문학』 4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6, 353~409면.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6. 2, 151~181면.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언어동화정책-황민화시기 일본어 상용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집, 1995. 12, 277~294면.  
조태린, 『일제시대의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7, 24~60면.  
최관진, 「어문정책과 한문교육 정책의 변천 연구-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청람어문교육』 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10, 233~240면.

### 3. 단행본

- 김윤식,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3~32면.
-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97~363면.
- 김윤식, 『이광수의 일어창작 및 산문선』, 역락, 2007, 197~236면.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 2004, 37~93면.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61~87면.
-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266~357면.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15~307면.
-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 문화사, 2000, 15~384면.
- Robinson, Douglas, (정혜옥 옮김), 『번역과 제국』, 동문선, 1997, 120~155면.
- Said, Edward W.,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1995, 155~156면.

A study on Lee Guang-su's bilingual writings  
under the linguistic policy in 1940's

Kim, Kyung-Mi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analyze the aspect and meaning in Lee Guang-su's bilingual writings in the late Japanese Empire in 1938-1945. The policy of Japanese language had made literatures in colonized *Chosun* being under the bilingual situation b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in *Chosun* the 3rd in 1938.

This acted upon the policy of language in colonized *Chosun*. Korean language, namely, had become minor language, on the other hand, Japanese language had become main language in colonized *Chosun*. It had worked by the diglossia as utility connection. It had affected not only linguistic realm, but also the sphere of the national identity. It had brought about the result that people felt themselves shameful in colonized *Chosun*.

Lee Guang-su's literatures were the translations in several ways; the works with bilingual language, the works by Japanese language, and translat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They were <Sunhangjang>(선행장), <their love>(그들의 사랑), <the principal, Kagawa>(가가와 교장). They had intentionally showed a breakaway from the writer. Moreover they had also showed a state of confusion that broke out in the process of the bilingual translation. After all these aspects had arrived at the consequence which Japanese language, the supremacy language had been changing to minor language.

The bilingual writings had been broke out as the situation of interference in the moment of connecting between Korean language and Japanese language. It wasn't seen in the phenomena in the monolingual language. The writer's intention slided constantly into the different way and representation in the bilingual realm. It is the feature of the speech-act under the bilingual

situation.

As a matter of fact, the writers intention was not entirely same to the consequence of writing-act. Therefore the bilingual writer, Lee Guang-su was showed the differences owing to his national identity, “the nation *Chosun*” although he took part in the Japanese Empire and tried to be a co-worker with Japanese literatures.

Key-words : bilingual language, Lee Guang-su, the linguistic policy in Japanese Empire, translation, the narrative breakaway, <Sunhangjang>(선행장), <the principal, Kagawa>, Korean language, Japanese language(the supremacy language in Japan Empire)

김경미  
경북대학교 국문과 강사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09-5번지  
전화번호: 010-8598-7928  
전자우편: [undertheneck@hanmail.net](mailto:undertheneck@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 11월 12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